

자동차株, 수혜주 등극에 주가 ‘훨훨’ 외국인도 현대차·기아 매수세 탑승

현대차·기아, 근래 최고가 경신
PBR·실적, 주주환원 조건 충족

주주가치 제고, ROE 상향 조정
영업지표 방향까지 바꾸지 않아
PBR 할인 완전 해소는 부담있어
정량적 ROE 개선 충분히 반영 중

호실적과 함께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현대차·기아에 외국인 매수세까지 몰리면서 주가가 날개를 날았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는 만큼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 자동차주인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최근 2주간(1월 22일~2월 5일) 각각 30.98%, 35.04%씩 급등했다. 두 종목 모두 근래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 동차그룹 내에 속해 있는 두 기업은 현대차를 형으로, 기아를 아우로 칭하고 있지만 최근 기아가 현대차의 시총을 넘어서면서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는 현대차가 다시 코스피 시총 5위의 자리를 탈환했다.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의 투자가 집중되는 기업은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견조한 실적, 강력한 주주환원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이라고 평가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현대차의 적정 PBR은 0.89배이며, 이를 대입한 적정주가는 34만원으로 업사이드 50%된다고 분석했다. 기아 역시 적정 PBR은 1.36배이기 때문에 적정주가가 18만6000원으로 55% 가량 업사이드된다.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또한, 4일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누적 판매대수가 153만8689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88만6653만대, 기아는 65만2036대의 판매 실적이다. 이는 전년 대비 38.9% 증가한 수치로 앞서 발표된 지난해 4분기 실적 결과에 이어 상당한 호실적으로 평가된다. 이중 해외 판매 비중은 78.3%(40만4530대)에 달한다.

게다가 두 기업 모두 주주환원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로 꼽힌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양사는 상장사 중 가장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자동차 부문에서 매월 1조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배당 재원이 튼튼하며, 금융회사와 달리 정부의 배당규제도 없어서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모범적인 회사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지배주주 순이익의 25%를 배당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3년간 1%씩 소각할 것으로 밝혔고, 기

아는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규 매입(상반기 중 50% 소각, 경영목표 달성 시 나머지 50%도 소각)을 발표한바 있다. 이는 실제로 역대 최대 외국인 순매수로 이어지면서 주가 급등세를 이뤄 내기도 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각각 9.13%, 12.42% 올랐던 지난 2일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현대차에 5532억원, 기아에 2710억원씩 유입됐다.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약 1조8950억원으로 현대차·기아가 이중 43.4%를 차지한다.

다만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액션은 분명 자기자본이익률(ROE) 상향 조정 근거가 되지만, 영업지표의 방향까지 바꾸지 않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업지표 방향성 전환이 확인되지 않은 지금 PBR 할인의 완전 해소는 부담스럽고, 현재 양사의 주가는 발표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따른 정량적 ROE 개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투운용, ‘장기자본시장가정 리포트’ 공개

자체 개발한 자산조합 방법론
변동성·간상관계수 가정 등 포함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1월 31일 한국투자신탁운용 유튜브 채널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도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LTCMA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40년 이상의 경기사이클을 분석해 자체 개발한 최적의 자산 조합 방법론으로 이번 LTCMA 리포트는 지난해 1월 첫 LTCMA 리포트 발간 이후 2번째다.

2024년도 LTCMA에는 장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자산군별 기대수익률과 위험(변동성), 자산군 간 상관계수에 대한 가정 등이 포함돼 있다. 2023년도 LTCMA와의 차이점은 2022년부터 상승한 금리수준을 반영해 만기보유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채권 기대수익률이 상승한 점이다. 미국 하일드 채권의 경우, 전년 대비 기대수익률이 약 1.5% 상승해 위험자산 중에

서는 기대수익률이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샤프비율(Sharpe Index)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자산으로 분석됐다. 반면, 주식의 경우, 원달러 환율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주식 기대수익률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소폭 상승, 원화 기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2023년도 LTCMA에 이어 2024년도 ‘크로스매칭(Cross Matching)’ 전략이 강조됐다. ‘Cross Matching’ 전략은 환노출한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이다. 환노출 투자시, 해외 주식의 변동성이 낮아 주식 투자비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는 ‘Cross Matching’ 전략을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 펀드 등 다양한 자산배분 솔루션 상품에 핵심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가 자동 조정되는 생애주기펀드로 LTCMA를 반영해 운용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헬릭스미스, ‘엔젠시스’로 상한가 연이어

(유전자 치료제)

中 임상3상서 주평가지표 달성

헬릭스미스가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가 중국 임상3상에서 주평가지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치솟았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3%)까지 오른 573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지난 2일에 이어 또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헬릭스미스의 중국파트너사인 노스랜드 바이오텍은 중증하지허혈(CLI)을 대상으로 엔젠시스(NL003)를 사용하여 실시한 폐양 완치 목적의 임상시험 3상에서 주평가지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날 노스랜드 측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차 평가지표인 폐양 완치율이 NL003 투여 그룹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우수했고(p<0.0001), 안전성면에서는 약물과 관련된 심각한 부



헬릭스미스 중국 파트너사 노스랜드 바이오텍 생명공학의약품 생산시설.

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노스랜드사는 휴지기 통증 감소를 주평가지표로 하는 임상 3상(300명 규모)과 폐양 완치를 주평가지표로 하는 임상 3상(240명 규모), 두 개의 독립적인 임상 3상을 2019년 7월 개시하여 중국 전역의 24개 임상시험센터에서 진행해 왔다.

이번 결과 발표는 폐양 완치 목적의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이며, 통증 감소를 목표로 하는 나머지 임상 3상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홍콩 ELS 판매중단…증권사 자금조달 타격”

나이스신용평가, 관련 보고서 발간
ELS 차지 비중 40.3%… 가장 높아
관련 리스크 줄어 충격 제한적일 것

시중은행들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 판매를 중단하면서 증권사에 타격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나이스신용평가가 발간한 ‘시중은행 ELS 판매축소가 증권사 및 캐피탈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 잔액중 ELS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가장 높다. 특히 증권사가 발행한 ELS 중 은행신탁 형태를 통해 판매된 규모는 전체 40조원 가운데 62.8%인 25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홍콩 H지수 기초 ELS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주요 판매채널인 시중은행은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하거나, 판매 대상 ELS 범위

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나신평은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축소 조치는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관련 수익과 조달원 다변화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나신평은 “은행의 ELS 판매 축소는 증권사가 ELS 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헤지운용 이익이나 조기상환 관련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등 수익 창출 다변화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ELS 헤지 관련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관련 발행 및 운용 손익은 1153억원 손실을 기록했는데 주로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른 헤지자산 운용손실(8000억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신평은 “은행의 ELS 판매 축소는 증권사가 ELS 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다변화 기회가 적어지

는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운용하는 증권사의 헤지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감소하므로 일방적인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자금조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의 예수부채와 차입부채를 합한 금액 중 ELS 또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월 기준 12.7%이다. 또한 ELS 발행 잔액 등을 감안하면 조달규모 가운데 약 5%가 판매축소 조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나신평은 “ELS는 헤지자산이 주로 파생상품 투자로 구성되어 있어 조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퇴직연금 시장 확대 등 ELB 발행 확대를 통해 ELS 수요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KB증권 “미성년 계좌 17만개로 증가 추세”

4년전비 15배 ↑… 용돈으로 소액투자

미성년 주식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KB증권이 이들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5일 KB증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KB증권 미성년 고객(0세~18세) 중 주식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고객은 17만526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만1632명 대비 약 15배 증가했고, KB증권 전체 고객 대비 비율도 1.50%에서 5.93%로 4.4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작년 연말 기준, KB증권의 미성년 자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TOP5는 삼성전자, 에코아이, 삼성전자우, POSCO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순이었으며, 해외주식 TOP 5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A, INVESCO QQQ TRUST UN 순이었다. 대부분 장기투자가 가능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 국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세뱃돈 등 용돈을 활용한 소액 투자도 관심이 늘고 있다. 작년 미성년자 주식 보유 고객 중 약 9.6%는 소액 투자를 활용한 소수점 주식도 보유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들도 최근 열기를 띠고 있는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미성년자녀 고객은 5만5373명에 달하며, 이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2.7회 참여했다.

/신하은 기자